

* 복제 및 복사, 다른 사이트 업로드는
성업적의도 없이, 출처를 밝히시면
모두 가능합니다!

Orbi 이연호.

현장감있게 조문재고 들었어도!
여러분이 시험하는 환경에서
다 맞춘 듯한 사고방식을
그대로 서술했습니다.

2017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제 4 교시

성명 이연호.

수험번호

3

1

1.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곡물로 사육된 육류를 파는 상인은 곡물이 부족해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슬픔을 모른다. 포장에 잘된 육류를 사는 소비자는 최신식 사육장에서 가축들이 겪는 고통을 모른다. 햄버거를 먹는 십 대들은 방목용 목초지 조성을 위해 열대우림이 불태워진 사실을 모른다. 이처럼 육류 소비는 단순한 입맛 차원을 넘어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육류 소비가 미래의 지구와 인류의 행복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 ① 육류 소비가 인간 생존에 반드시 필요함을 이해해야 한다.
- ② 육류 소비는 취향의 문제로 윤리와 무관함을 파악해야 한다.
- ③ 육류의 대량 생산을 위해 공장식 축산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 ④ 육류 생산의 효율을 높여 육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 ⑤ 육류 소비가 인간과 동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해야 한다.

시력테스트 .

3.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친한 이를 친애하는 것은 셋으로 다섯이 되고 다섯으로 아홉이 되니, 위를 줄이고 아래를 줄이며 옆을 줄여 친함이 끝나게 된다.
- 효와 자애를 이루는 데는 친한 이를 친애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없다. 한 친족 안에는 어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 돈독하고 화목한 은혜는 마땅히 균일해야 하지만 등용(登用)하고 버리는 의리는 마땅히 구별되어야 한다.

- ㉠ 친족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 정을 나누어야 한다.
- ㉡ 친소와 세대를 기준으로 친족 간 질서를 세워야 한다.
- ㉢ 친족 간 존수가 커질수록 가까운 관계임을 알아야 한다.
- ㉣ 가족 내부의 결속을 위해 혈연 간 유대가 돈독해야 한다.
- ㉤ 친족 간에 예절을 지침으로써 분별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② 무조건 그런거 절대 아니지요?

일단 존수가 작은 부모-형제 가까운 관계일지!

4.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네~할!

자원이 부족해도 잘 운영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자원이 풍족해도 어려움을 겪는 국가가 있다. 이는 각 국가의 정치 문화 차이에 기인한다. 따라서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 체제를 개선하여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국제 관계에도 차등의 원칙을 적용해 많은 자원을 가진 나라들의 이익을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에게 분배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주장이 ㉠은 점을 간파하고 있다고 본다.

- ① 원조 대상국의 선정 요건은 경제적 빈곤만으로 충분하다.
- ② 국가 간 빈부 격차가 시정될 때까지 원조가 지속되어야 한다.
- ③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해 원조에 차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 ④ 원조는 자원 배분의 우연성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 ⑤ 민주적 질서가 수립되면 부의 차이 극복을 위한 원조는 불필요하다.

↳ 물의 최고강점입니다.

물스는 빈곤해도 질서정연하면 원조안해도 된다고봄.

제시문에서 물스저 안한다고함

제시문에서

피어가능한 "비어조"의 입장 (밑줄참고!)

5. 다음 가상 편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OO에게

요즘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심각하네. 이를 막기 위해 자신이 속한 조직에 의해 저질러진 부도덕한 행위를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람으로써, 부정의를 시정하고 조직의 변화를 모색하는 내부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네. 내부 고발은 조직에 혼란을 준다고 비난받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개인의 양심에 입각해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옳다고 보네. 또한 조직의 부당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제거한다는 면에서 조직에도 도움이 된다고. ... (후략)...

- ① 개인의 양심보다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 ② 개인의 정의감에 따른 내부 고발은 사회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다.
- ③ 사회 정의뿐 아니라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도 내부 고발은 필요하다.
- ④ 조직 내부정리는 대외 신뢰도 유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⑤ 내부 고발은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해 조직의 효율적 운용을 방해한다.

.. 네 알겠습니다.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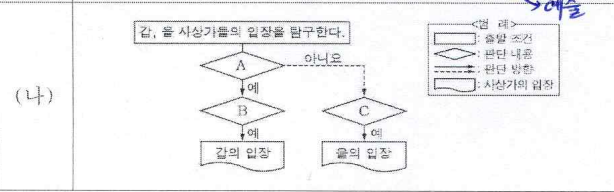
카트 칸트인가, 비모르겠음거예요. 군더 선지판고서 '어제 칸트인가?'에 대한 생각은 하셔야해요. 다... 미적 판단과 도덕적 형식성? 아지된 뜬금포지..? 아... 아지 칸트인가..? 와 같은 사고 방식이 필요해요!

(가) 갑: 아름다움[美]을 느낄 때 우리 마음은 감각적 쾌락을 넘어 순화되고 고귀함을 얻는다. 미적 판단은 주관적 판단이지만 이해관계를 초월한 **편견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미는 **도덕적 선(善)의 상징**이 된다. **도덕주의**

을: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예술가가 도덕에 편승하게 되면 예술은 매너리즘에 빠진다. **제상에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작품은 없다.** 다만 **훌륭하거나 혹은 형편없는 작품이 있을 따름이다.**

칸트

정수리 예술



- 〈 보기 〉
- ㉠ A: 미적 체험이 도덕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 A: 미는 도덕에 종속되지 않는 자율성을 지니는가?
 - ㉢ B: 미적 판단과 도덕 판단의 형식은 유사한가?
 - ㉣ C: 미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 ① 가, 나 ② 가, 리 ③ 나, 리
- ④ 가, 리, 리 ⑤ 나, 리, 리

칸트는 당연히 맞다고 하겠지요! 반면 예술주의는 도덕적 예술이 부편견다고 할 것이고.

칸트는 판단하기 어렵다 쳐도. 형식주의가 "에"라고 대항할 것임.

.. 미의 판단에 대한 칸트사상적 특징입니다. 꼭 알아 두세요!

6. 다음 대화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 중심적 사회 구조로 인해 차별을 받아 온 사회적 약자입니다. 따라서 여성에게 직·간접적 혜택을 제공하는 적극적 우대 정책이 필요합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 우대 정책은 능력과 업적에 기초한 분배 원칙에 어긋납니다. 혜택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던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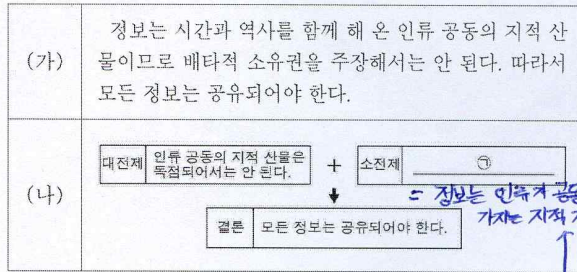
갑: 아닙니다. 10미터 경주에서 한 사람이 50미터를 갈 때, 다른 사람은 발목에 쇠구슬이 묶여 10미터밖에 못 갔다고 합시다. 이때 경쟁이 공정하려면 쇠구슬을 푸는 것만이 아니라 쇠구슬로 인해 벌어진 40미터를 만회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을: 제 생각에 당신의 주장은 ㉠

- ① 과거의 차별에 대한 현재의 보상이 정당함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② 여성 우대 정책이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③ 우대 정책으로 또 다른 차별이 생길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④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기회를 부여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⑤ 차별받은 개인이 아닌 집단이 보상의 대상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음... 녀...

8.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보는 창작자 개인의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유재이다.
- ② 정보의 자유로운 복제가 정보 생산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 ③ 지적 재산의 제한 없는 공유가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 ④ 정보에 대한 소유권 인정이 정보의 공공적 가치를 훼손시킨다.
- ⑤ 소수에 의한 정보 독점 행위는 정보 격차의 문제를 심화시킨다.

여키나살 탐자 구원하셔서 (대략이라도) 아셔야해요! 여러분, 이렇게 까다롭고 지엽적으로 물어보는데 대박을 안갈수가 있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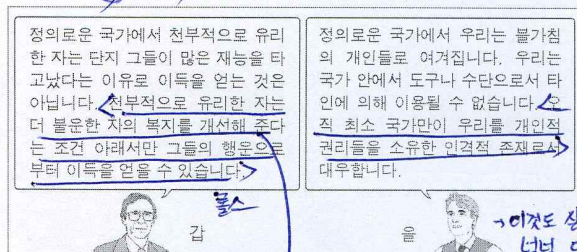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전쟁은 공동선과 평화를 위한 것이다. 정의로운 전쟁을 위해서는 전쟁이 적법한 군주의 명령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고, 전쟁을 통해 부정의가 처벌되어야 하며, 전쟁의 수행자가 옳은 의도를 지녀야 한다.

을: 전쟁은 침략으로부터의 방어, 침략으로 강탈된 영토의 회복, 인간 존엄성 보호를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 등의 목적이 있을 때 정당화된다. 즉 전쟁의 목적은 복수나 상대방의 말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는 것이어야 한다.

- ① 갑은 전쟁을 선포하는 권한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고 본다. (적법한 군주의 명령)
- ② 을은 정당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자국의 실익을 위한 침략 전쟁은 부당하다고 본다. (가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전쟁 중의 모든 살상 행위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저 실익을 위하는 전쟁에는 반대)
- ⑤ 갑, 을은 전쟁이 국가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고 본다. (복수나 말살에 있지 않음! 선의의 전쟁이 정의를 위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10. 갑은 ㉠, 을은 ㉡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한 국가의 재분배 정책은 필요한가? (X) (O)
- ② 전부적 재능은 최소 수혜자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가? (X) (X)
- ③ 최소 국가 이상의 포괄적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X) (O)
- ④ 우연적 차이에 의한 영향을 줄이려는 국가의 노력은 정당한가? (O) (X)
- ⑤ 정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가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가? (O) (O)

"전부적으로 유리한자보다 더 불운한자" 즉 최소수혜자 [O] 노적 → 전부적 재능은 개인이것! 나 롤스에게 전부적재능은 공동의 재산!

9. 그림은 형성 평가이다. 학생의 답이 옳게 표시된 것만을 ㉠~㉣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형성 평가

3학년 □반 이름: ○○○

* 갑, 을 사상가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주장으로 옳으면 '예', 틀리면 '아니요'에 √ 표를 하시오.

갑: 우리는 지각, 기억, 믿음, 복지에 대한 이해관계, 자신의 목표를 위해 행위하는 능력 등을 지닌 살의 주체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지닌 존재들은 모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을: 자연 내 존재는 지각력이 없이도 그 자신의 고유한 선을 가질 수 있으나 그것은 반드시 살아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를 결정짓는 특징은 그 존재가 고유한 선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 주장1: 모든 도덕적 행위 주체는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 이제는 안! 인권본연적 개념! 예) 아니요 (X) (O) (O)

㉡ 주장2: 모든 동물은 인간의 가치 판단과 무관하게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당연! 예) 아니요 (X) (O) (O)

㉢ 주장3: 모든 생명체는 고유의 목적 지향적 활동을 한다는 면에서 존엄성을 지닌다. 테일러 예) 아니요 (X) (O) (O)

㉣ 주장4: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는 모든 존재는 도덕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예) 아니요 (X) (O) (O)

- ㉠ ㉠, ㉡
- ㉡ ㉠, ㉡, ㉢
- ㉢ ㉠, ㉡
- ㉣ ㉠, ㉡, ㉢

7. L. 더 있었으면 힐. 파. 리. 그 자체가 만들어졌을 텐데 반대경비. 일단 실천에서는 ㉠ ㉡ 맞고 ㉢ ㉣은 다 풀고 넘어가세요. ㉢은 다 풀고 넘어가세요. 리건은 '도덕적 행위 능력' 나중에 해설을 보시면 되니까!

11.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죽음의 불안 앞에서 도피하지 않고 그것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는 것을 '죽음으로의 선구(先驅)', 즉 죽음으로 앞서 달려감이라고 합니다. 죽음으로의 선구는 죽음의 확실성을 인식함으로써 오히려 삶에서 그 어느 것에 의해서도 대체될 수 없는 각자의 고유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존재는 죽음을 자각함으로써 자신의 본래적인 존재 가능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 죽음 이후에 타인과 구별되는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나.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다.
 다. 죽음을 자각함으로써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다.
 라. 죽음은 현실을 벗어나 또 다른 세계로 가는 유희의 과정이다.

- ① 가, 라 ② 나, 다 ③ 다, 라
 ④ 가, 나, 다 ⑤ 가, 나, 라

12. 그림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신문 칼 렘 ○○○○년 ○월 ○일

사람들은 대부분 쓰레기 소각장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그 시설이 자기 동네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기적으로 변한다. 이들이 집단을 이루면 이기심은 더 커져 집단행동이 나타나고 사회적 갈등은 고조된다. 우리는 이러한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서양 사상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은 "모든 집단에서 집단 속 개인들은 사적 관계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심한 이기주의를 표출한다. 그런데 도덕주의자들은 모든 도덕적인 사회 목표들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가 얼마나 완강하게 저항하는지를 간파하지 못한다."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라고 주장하였다. ... (후략)...

- 선지동제밀요 ①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합리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불간현이용재 ② 집단 간 세력 불균형을 이용해 집단 간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갈등이 관계대 ③ 이성과 양심의 함양과 같은 개인 윤리적 해법만을 사용해야 한다.
 좌우필경 ④ 집단 내 개인은 타인의 욕구 수용 능력이 부족함을 알아야 한다.
 ⑤ 집단 부정의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정치적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

1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질문에 모두 바르게 대답한 것은? [3점]

갑: 형벌은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칸트
 을: 형벌에 의한 범죄 억제력은 사형을 목격하는 데서 생겨나지 않는다. 범죄자가 사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노동으로 속죄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오래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인 억제책이다.
배카리아

	질문	대답	
		갑	을
①	형벌의 본질은 사회적 유용성의 구현인가?	X	예
②	사형은 동해보복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나오	X
③	사형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시행되면 안 되는가?	X	아니오
④	형벌의 긍정적 효과가 형벌의 수단을 정당화하는가?	아	예
⑤	형벌은 범죄의 해악 방지를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가?	아	아니오

제거 표시한게 올바른 대답입니다

14.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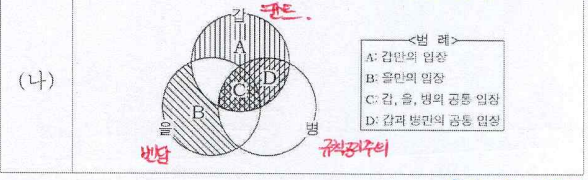
갑: 과학은 종교에 의존해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종교는 과학에 의존해 경이로운 우주의 질서를 발견하게 된다. 서로를 배제한 종교와 과학은 불안전할 뿐이다.
 을: 과학과 종교는 증거의 척도에서 양극단에 위치해 있다. 과학은 증거에 입각해 사실을 증명하려는 반면 종교는 증거에 맞서는 맹목적 믿음이기 때문이다. 증거가 있으면 믿게 되므로 증거가 없는 믿음은 무의미하다

가. 갑은 과학과 종교는 상보적 관계로 양립 가능하다고 본다.
 나. 을은 입증 가능한 것만이 믿음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다. 을은 갑과 달리 과학이 종교를 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라. 갑, 을은 과학적 증명은 초월적 신앙에 의존해야 한다고 본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라
 ④ 가, 다, 라 ⑤ 나, 다, 라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어떤 행위가 옳은 것은 그 행위가 오로지 의무감에서 행해지고 그 행위 원리가 보편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칸트
 을: 어떤 행위가 옳은 것은 그 행위가 문제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다른 행위를 할 때보다 더 큰 효용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벤담
 병: 어떤 행위가 옳은 것은 그 행위가 하나의 규칙 아래 놓여 있으면서 그 규칙을 따른 행위가 다른 규칙을 따를 때보다 더 큰 효용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규칙공리주의



가. A: 실천 이성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한다.
 나. B: 윤리적 의사 결정을 할 때 유용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칸트: 의무감
 다. C: 옳은 행위의 판단 기준이 되는 도덕 원리를 탐구해야 한다. 벤담: 수량적
 라. D: 규칙은 결과 아닌 그 자체로 도덕적 타당성을 지녀야 한다. "공리원리"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라
 ④ 가, 다, 라 ⑤ 나, 다, 라

2는 칸트에게만 맞음. 공리주의자는 결과고!

16.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율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남성 중심의 정의 윤리는 그동안 여성의 도덕성을 간과해 왔다. 이제는 정서적 돌봄과 보살핌을 특징으로 하는 여성의 도덕성에 주목해야 할 때이다.

<문제 상황>

A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하던 중 길을 잃어 가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였다. A는 친구와의 약속을 지켜야 할지, 길 잃은 아이를 도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1. 아이를 도왔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을 계산해 보렴.
2. 아이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배제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렴.
3.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렴.
4. 도덕 행위의 기본 원칙인 도덕적 의무 의식에 따라 행동하렴.
5.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보편적 도덕 법칙을 행위의 근거로 정하렴.

17. 다음 한국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으며 윗사람에게 바치는 뇌물은 수만 냥이 넘으니 어려운 사람을 위해 베풀 여유가 어디 있겠는가?
무릇 관부(官府) 안은 마땅히 엄중하고 맑아야 한다. 친척이나 친구들이 관내에 많이 살면 거둬 엄중하게 단속하여 의심과 비방을 끊고 서로의 친한 정(情誼)을 보전해야 한다.

<보기>

- ㉠ 공직자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정함을 기해야 한다.
㉡ 공직자는 곤궁한 사람을 돕는 애민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 공직자가 청탁의 대가를 받을 경우 이를 백성 구제에 써야 한다.
㉣ 공직자의 검약은 백성의 충성에 상응하는 초자연적 의무여야 한다.

- 1. ㉠, ㉡
2. ㉡, ㉢
3. ㉢, ㉣
4. ㉠, ㉡, ㉢
5. ㉠, ㉢, ㉣

18.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World globalization era, multiculturalism is an inevitable phenomenon.
Diversity is a phenomenon that cannot be avoided in a globalized era.
Diversity is a phenomenon that cannot be avoided in a globalized era.
Diversity is a phenomenon that cannot be avoided in a globalized era.

- 1. 세계화 시대에 다문화는 불가피한 현상인가?
2. 다양한 문화들을 비교해 우열을 가려야 하는가?
3. 단일한 문화를 전제로 사회 통합을 지향해야 하는가?
4.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 간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가?
5. 서로 다른 문화가 동등한 자격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

19. A~C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윤리학의 구분에 따르면, A는 삶의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에 대해 적절한 윤리 이론을 적용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B는 선과 악, 옳고 그름 등의 가치 판단과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 주는 규칙이나 원리의 타당성에 대해 탐구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한편 C는 윤리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거나 윤리적 용어 및 개념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둔다.

<보기>

- ㉠ A는 B와 달리 보편적 도덕 원리의 탐구를 강조한다.
㉡ A는 C에 비해 도덕적 행위의 실천적 가치를 중시한다.
㉢ A, B는 도덕적 진술이 당위적 진술이어야 함을 중시한다.
㉣ B, C는 각 사회의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강조한다.

- 1. ㉠, ㉡
2. ㉠, ㉢
3. ㉡, ㉣
4. ㉠, ㉢, ㉣
5. ㉡, ㉢, ㉣

20.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라는 말처럼 산업화에서 비롯된 여러 위험 요소들이 오늘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을: 그렇습니다. 위험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위기를 안겨 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일반인들의 참여는 전문성의 부족으로 혼란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파생된 위험은 결국 과학적 합리성을 지닌 전문가들이 해결해야 합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의 합리성에만 기대 과학 기술의 발달이 위험을 초래했으므로 이제는 인류 공동체가 이를 공동 문화하여 비판하고 성찰함으로써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 1. 위험과 관련된 위기 해결은 과학자의 몫인가?
2. 위험은 근대화의 결과가 아닌 정보화의 산물인가?
3. 전통 사회에 비해 현대 사회에서 위험이 증가하는가?
4. 위험으로 인한 피해는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5. 합리성에 대한 존중은 과학자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가?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